

## 집단미술치료활동이 부적응 아동의 학교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은혜\* 정선화\*\*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활동이 부적응행동 아동의 학교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S시 00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의 1,2,3 학년 아동 9명을 대상으로 부적응행동과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알아보았고, 학교생활화(KSD) 그림 검사를 통해 연구대상과 연구대상의 교사, 친구와의 학교적응 행동의 변화를 질적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단미술치료활동은 부적응행동아동의 부적응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친구관계, 수업참여, 그리고 자기통제점수는 사전에는 낮게 나타났으나 집단미술치료활동 이후 학교생활적응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학교생활화(KSD) 그림검사 분석에서도 초기의 친구들과 분리된 혼자만의 모습이나 싸우는 장면 또는 총이나 칼로 겨누는 모습 등 부정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사후에는 함께 운동을 하거나 자신과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거나 그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림의 선들이 부드럽게 나타나는 등 부적응행동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이나 정서적 심리상태의 감정 변화가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중심단어 :** 집단미술치료, 부적응행동, 자기통제, 수업참여, 친구관계

---

• 논문 투고일: 2014년 10월 15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12일

\*한영신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4년 11월 7일

## I. 여는 글

최근 들어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응 문제로 야기되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대상 교사의 70%이상이 자신의 학급 학생들이 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인성적인 발달의 속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즉 변화의 선상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sup>2)</sup> 특히 학습이나 행동에 문제를 보이면서 사회적 대인관계나 집단생활에 곤란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교 현장관계자의 말을 참고해 보면, 한 학급당 최소한 1-2명은 수업이나 활동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정서적으로 충동적이고 산만하거나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는 등 심리적으로 경미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가진 아동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도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한 학급에서 수개월간 관찰한 결과 여러 명의 아동이 다른 또래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 피해는 상대 아동뿐 아니라 학급을 이끄는 교사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절절한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부모와의 연계로 이어졌으며, 실제로 학교에서 학급마다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들로 인해 담임교사가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몇몇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sup>3)</sup>

부적응아동은 과제수행에 곤란함을 겪으며, 자신이나 타인에게 바람

- 
- 1) 김연민,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전도식기 아동연구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2010), 4.
  - 2) A. Angrili & L. Helfat, *Child Psychology* (New York: Harper & Row, 1981), 55, 60.
  - 3) 정금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2008), 2-3.

직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되는 아동이라고 정의되는데,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불안해하며, 대체로 주저하는 행동을 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수업시간에 발표를 꺼리며, 거짓말, 비어나 욕설, 싸움 등 습관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결국은 청소년 시기에 다른 비행과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선모는 학교생활을 하는데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대인관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4)</sup>

현대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응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아동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에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학습을 돕고, 정서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증명되고 있으며<sup>5)</sup>,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며, 때로는 자신도 간과하고 있는 진실을 보도록 도와준다.

미술치료는 자신이 자율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치유할 수 있고 언어적인 표현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여 자신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함으로써 부적응 현상을 줄어든도록 한다. 따라서 미술치료는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미술활동을 적용하여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완화하여 인간성을 개발하고 운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6)</sup>

최근에 미술치료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가

4) 문선모,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양서원, 2010), 156-160.

5) J. A. Rubin, *Art Therapy: An Introduction* (Philadelphia: Brunner/Mazel, 1999), 30.

6) 정선화 외, 『가족미술치료와 물고기 가족화의 해석』 (경기: 한국학술정보, 2011), 34, 51.

진행되고 있다. 아동기에는 객관적인 현실과 욕망, 자신의 감정과 공상 등을 그림에 반영하는 특성이 있기에 아동화를 분석함으로써 자아상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sup>7)</sup> 현재는 미술치료가 심각한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행동적 문제가 있어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sup>8)</sup> 특히 미술치료방법 중에서도 집단미술치료는 아동의 대인관계 기술이나 사회적인 행동을 바람직하게 습득하도록 하고 내제된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시켜 준다. 미술치료 기법은 초등학교의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학교적응에 효과가 있다.<sup>9)</sup>

집단미술치료(group art therapy)는 집단치료(group therapy)와 미술치료(art therapy)가 통합된 것으로서 심리치료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미술을 주 매체로 사용하여 집단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집단미술의 진행과정은 도입, 활동, 토론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도입부분은 서로 친밀해지면서 평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동시간에는 활동 자체에 몰입하여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부분에서는 먼저 자신과 타인의 작품을 다시 살펴보면서 치료자와 집단원, 집단원과 집단원, 집단원과 작품 사이에 더 많은 정보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토론과정에서는 차례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설명하거나 그 회기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분석이나 진단을 삼가야하며 느낌을 나누고 질문을 함으

- 
- 7) 박선화,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1-2, 14.
  - 8) 최연애,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2006), 1-4.
  - 9) 김보경, “학급단위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11), 18.

로써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감정을 공유한다.<sup>10)</sup>

집단미술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보면 자신의 그림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동시에 서로 가르쳐주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집단미술치료는 타인의 다른 행동양식, 사고, 감정을 모방하는 행동이 촉진되고 집단성원끼리 미술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대인관계 증진에 효과적이다.<sup>11)</sup>

집단미술치료는 초등학교 위축아동의 위축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sup>12)</sup> 교사와 급우관계의 학교적응에 개선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수업참여에 효과가 있었다.<sup>13)</sup> 또한 집단미술치료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sup>14)</sup> 초등학교 아동의 대인관계변화에 있어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고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성향으로 변화하였으며,<sup>15)</sup> 집단 활동 과정에서 집단원들의 다양한 표현능력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여 각 작품마다 특별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다.<sup>16)</sup> 그 이외에도 집단미

10) 최선남 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서울 : 카운피어 원격교육연수원, 2002), 3, 10.

11) 전미향,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1998), 43.

12) 송인숙,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위축아동의 위축행동과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1999), 1-5.

13) 이미애,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대학원, (2001), 22-25.

14) 김화정,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행상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24.

15) 박승란,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2-3.

16) 안연옥, “집단미술치료가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술치료는 아동의 창의성과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sup>17)</sup> 정서와<sup>18)</sup>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학교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채의병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를 경험한 결과 학교생활이 향상되었고,<sup>19)</sup> 비행청소년들과<sup>20)</sup> 결손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sup>21)</sup>에서 집단미술치료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집단미술치료는 개인의 측면이나 집단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부적응행동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초등학교 아동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은 성취동기 부족, 나쁜 공부습관, 주의산만, 수줍음과 위축, 긴장과 불안, 의존적 행동, 공격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부분 자기통제의 부족이나 사회성 결여로 인한 대인관계가 많은 부분은 차지한다. 이러한 부적응 행동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아동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부적절하게 방어적 행동을 취하여 문제아로 인식되기 쉽고<sup>22)</sup> 적대감이나 공포감이 누적되어 내재화 되면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갈등으로 심화될 위험이 높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들은 그 안에서 인격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느냐

17) 황지희,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성과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대학원, 2003), 55.

18) 양은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2003), 11.

19) 채의병, “집단미술치료가 부적응행동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2007), 1-5.

20) 김선관, “기출소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대학원, 2000), 25.

21) 정익현,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2001), 45.

22) P. W. Jacson, *Life in Classroom*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e Inc., 1968), 13.

의 정도가 장래의 문화적, 사회적 활동의 기본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초등학교를 전후한 아동기와 이후의 청소년 초기는 한 인간이 얼마나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기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결과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고는 있으나 아동의 학교부적응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고 학교의 교사입장이기 보다는 병원이나 특별한 기관에 의뢰되어진 아동이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sup>23)</sup>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에서 학교 내 방과 후 교실에 속해 있는 부적응행동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활용한 미술 활동을 적용하여 집단 내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집단원의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미술활동이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미술활동이 학교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3) 장은경, “서울 지역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의 미술치료 현황과 과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9권 8호(2009): 350-359.

## II. 펴는 글

### 1.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대상아동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의 1,2,3학년 아동 9명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는 아동으로서 담임교사의 부적응 행동준거 목록표의 결과, 방과 후 담당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부적응 행동 아동으로 선별되었다. 면밀하게 과정을 관찰하고 변화를 기록하기 위하여 보조치료사 2명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다.

#### 2) 연구절차

연구기간은 2011년 9월4일부터 2012년 1월22일까지 주1회로 총 20회기로 구성하였고, 한 회기 당 소요시간은 50분씩, 2회 활동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초등학교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의 활동지원방법의 특성상 한회기에 3타임(1타임이 40분)으로 정해져 있어 50분 작업하고 20분간 간식시간과 휴식을 갖고 다시 50분 작업을 하였다.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로 방과 후 교실 담당교사와 각 아동들에 대한 행동특징과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 패턴, 그 아동에게 미술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인터뷰 하였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참고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서는 방과 후 아동들의 담임교사에게 부적응 행동준거 목록표와 행동관찰에 의한 부적응 척도, 학교생활 적응 검사지를 배부하였다. 기간과 요일, 시간을 결정한 후 각 부모에게 신청 동의서를 발송하여 회수했으며, 아동이 일관성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석하는데 도움을 요청하였다.

## 2. 자료 분석

### 1) 양적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별도구는 부적응 행동준거 목록표와 설문지이다. 담임교사가 아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행동관찰에 의한 부적응 척도’이다.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검사’도 실시하였다.

#### (1) 부적응 행동준거 목록표

담임교사가 보육교실 아동을 관찰하여 실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 행동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은 20개로 되어있고 답은 ‘그렇다’ 또는 ‘아니다’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 (2) 행동관찰에 의한 부적응 척도

학교 부적응 행동준거 목록표는 Rinwert<sup>24)</sup>, 정원식<sup>25)</sup>, 홍경자<sup>26)</sup>의 부적응 행동준거와 문선모의 학교적응준거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고 27) 체크된 것이 많을수록 부적응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임교사가 행동을 관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많이 그런 편이다’ 중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여 점수화 한다.

#### (3) 학교생활 적응검사

학교생활 적응검사는 Fylnn의 초등학교생활 적응척도를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 맞게 번역한 문선모<sup>28)</sup>의 이론과 공진홍<sup>29)</sup>의 연구에서 이 척

---

24) J. Rinwert, *Children in Conflict* (St. Louis, MO.: Mosby Co., 1976).

25) 정원식 공저, 『현대교육심리학』(서울: 교육출판사, 1984), 23.

26) 홍경자,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 개발에 관한연구”(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86), 1-2.

27) 문선모, 『교육심리학의 이해』, 156-160.

28) S. Fabio & T. John, *Experimental Design and Statistics for Psychology: A First Course*, 문선모 역, 『교육심리통계법』(서울: 교육과학사, 1992), 295.

29) 공진홍, “과잉행동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행동수정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33-34.

도가 효과적이었다는 근거에 의해 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 적응의 5개영역 즉, 교사관계, 급우관계, 인지기술, 수업참여, 자기통제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수업참여, 자기통제만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각의 하위영역별 문항을 보면 친구관계에서는 1,2,3,4,5번에 해당하는 항목에 내용을 포함하고, 수업참여는 6,7,8,9,10에서, 자기통제의 내용은 11,12,13,14,15문항에서 다루도록 한다. 각 문항 당 가, 나, 다, 라, 마중에서 해당하는 한 항목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다.

## 2) 질적 분석

연구대상 아동들의 학교에서의 적응정도와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대한 본인의 인식을 진단하기 위해 KSD그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별작품 분석, 활동내용 비교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 (1) 학교생활화 KSD(Kinetic School Drawing)사전·사후비교 및 미술 활동 내용 분석

학교생활화는 Knoff와 Prout<sup>30)</sup>가 개발하였으며, 아동자신을 포함해서 선생님, 친구가 함께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리되 모두 무언가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도록 한다. 이 그림검사에서는 아동의 자신에 대한 지각, 교사나 또래에 대한 관계와 지각을 나타내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 적응 행동의 변화를 보기 위해 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대표적인 활동을 보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그리거나 자유화 그리기를 통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위에 편지를 쓰는 활동이나 친구 얼굴을 그리는 활동, 선물 만들어서 주는 작업에서는 자연스럽게 또래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도와주면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과정

30) H. Knoff & H. D. Prout, *Kinetic Drawing System for Family and School: A Handbook*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8), 25.

을 파악할 수 있다. 석고붕대로 친구 손 모양 떠주기 활동은 배려와 협동심, 또래의 입장 이해하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 보조치료사들과 함께 면밀히 관찰하여 기록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3)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는데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sup>31) 32) 33)</sup>를 참고하였고, 임상미술치료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서의 변화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20회기 동안 실시하였고, 회기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1〉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내용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주요 준비물	기대 효과
1	초기	KSD, 이름 꾸미기	연필,크레파스,A4용지, 도화지	rapport형성 흥미유발 작업에대한집중 력 증가
2		우드락 판화, 나의 첫 번째 기억그리기	우드락,나무젓가락,물감,붓, 도화지,색연필	
3		모래 fingerpainting, 우리 동네 꾸미기	우드락,찰흙,물감,모래,물풀	
4		난화game	도화지,싸이펜	
5		자유롭게 만들기, 데칼코마니모빌	검정색우드락판,지점토,OHPfilm,물감,뉘싯줄,가위,셀로판테이프	
6		자유화 그리기, 명화감상(점묘법-쇠라의 그림자트럼의 오후)	물감,면봉,접시,도화지,크레파스,다양한크기의 붓	
7	중기	나의 과거, 현재, 미래그리기, 내 얼굴 만들기	도화지,크레파스,찰흙, 일회용접시,모루,가위	자기 이해 잠재의식 표출,
8		소망나무 만들기, 내가 받고싶은 선물 골라주,	물감,종이컵,접지,가위,풀, 도화지,찰흙, 셀로판테이프	

31) 이미애,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22-25.  
 32) 최연애,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2006), 1-4.  
 33) 최효숙, “매체에 따른 만다라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12), 34, 70.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주요 준비물	기대 효과
9	중기	투명인간 되어보기, 감정사전 만들기	OHP,색연필,싸인펜, 색종이,가위,도화지,물	자기욕구 표현, 또래인식의 시도
10		내가 좋아하는 친구얼굴 꾸미기(골라주), 자연만다라(2인1조)	연필,잡지,가위,물,도화지, 나뭇잎,찰흙,나뭇가지	
11		신체본뜨기(4인1조)	색종이,플,전지,가위, 셀로판테이프,	
12		파스텔그림그리기, 그림위에편지 쓰기	파스텔,크레파스,도화지	
13		친구 손뜨기, 채색하기	석고붕대,싸인펜,가위, 신문지,물그릇	
14	후기	타임머신타기, 친구에게 주고싶은 상장	물감,색연필	타인수용, 배려, 관계인식, 사회성증진, 친사회성증진 협력하기
15		rollingpaper(3인1조), 친구얼굴그리기	OHP,유성매직,도화지,색연필,크레파스	
16		행복피자	머메이드지	
17		우리학교 꾸미기	우드락판,신문지,습자지,한지,물	
18		선물바구니 만들기	색지,가위,물,색종이, 리본끈	
19		친구에게 줄 선물 만들기	컬러점토,열쇠고리	
20		KSD,선물바구니와 선물교환 전서를 감상하고 활동평가하기	연필,형검,색연필	

### 3. 연구의 결과 분석

본 연구는 학급에서 부적응 행동으로 선별된 아동에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한 것으로, 학교생활 적응검사와 KSD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활동과 과정 중의 행동을 관찰, 분석 하였다. 실시 전과 후에 SPSS 18v.를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부적응 행동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집단에서 프로그램 전과 후에 부적응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전 부적응 행동이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 $t=5.851, p<.01$ ). 즉 사전에 비해 사후에서 부적응 행동 점수가 약 7.89 점이 하락하였다. 부적응 행동 측정치에 대한 통계 결과는 <표 2>에 요약하였다.

<표 2> 프로그램집단의 부적응행동과 학교생활 적응도의 사전-사후 검증결과

	부적응 행동 M(SD)		t값	학교 적응 M(SD)		t값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실험집단 (N=9)	14.78 (6.81)	6.89 (3.37)	5.851***	53.22 (12.84)	59.22 (10.11)	-5.622***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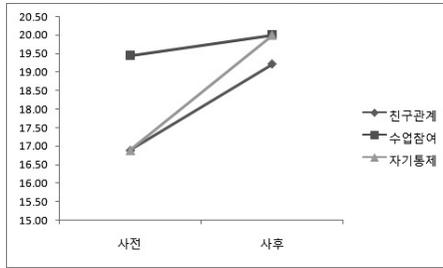
또한 학교생활 적응과 각 하위요인별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점수가 사전에 비해서 사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친구관계,  $t = -4.041, p<.01$ ; 수업참여,  $t = -1.890, p<.1$ ; 자기통제,  $t = -4.912, p<.01$ ). 친구관계는 사전에 비해 2.33점, 수업참여는 .56점, 자기통제는 3.11점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부적응 행동점수가 사전검사보다 사후에 낮아졌고, 학교생활 적응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증가하였다는 결과는 대상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결과는 <표 3>에 요약하였으며, 측정시점에 따른 점수의 변화는 (그림1)에 제시하였다.

<표 3> 학교생활 적응도의 하위 요인별 사전-사후 검증결과

	사전	사후	t값
친구관계 M(SD)	16.89(4.75)	19.22(3.11)	-4.04***
수업참여 M(SD)	19.44(4.75)	20.00(4.56)	-1.89*
자기통제 M(SD)	16.89(4.14)	20.00(3.00)	-4.91***

\* $p < .01$ , \*\* $p < .05$ , \*\*\* $p < .01$



〈그림 1〉 측정시점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척도의 요인별 점수

## 2)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

먼저 전체 집단의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제시한 후 아동들의 개별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프로그램집단에서 프로그램 전과 후에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전 학교 적응이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t = -5.62, p < .01$ ). 즉 사전에 비해 사후에서 학교적응 점수가 약 6점 상승하였다. 학교생활 적응 측정치에 대한 통계 결과는 <표 4, 5, 6>에 요약하였다

### (1)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하위영역 중에서 친구관계영역은 교실에서의 급우와의 친밀도, 다른 급우와 함께 활동할 때의 태도, 급우의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태도, 자유스러운 놀이 시간의 활용, 유머의 사용에 대한 항목을 포함한다. 문항 수는 5개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를 사용했으며 각 요인별로 합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행동이 높은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적응행동이 낮은 것이다.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적용 전인 사전검사에서 적응력이 67%를 나타내던 것이 연구 후 77%로 친구관계에 대한 대상 아동들의 적응력이 약 10%의 증가를 나타냈다. B아동은 적응력이 20%가 증가하여 연구 대상 중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G와 I아동은 16%가 향상되었고 H는 8%, C, D, E아동은 4%의 향상율을 보였다.

〈표 4〉친구관계의 개별 결과

구분 아동	평점(25)		백분율(%)		증감 정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A	13	16	52	64	12
B	10	15	40	60	20
C	22	23	88	92	4
D	22	23	88	92	4
E	20	21	80	84	4
F	13	17	52	68	16
G	22	22	88	88	0
H	17	19	68	76	8
I	13	17	52	68	16
평균	16.89	19.22	67.56	76.89	9.33

## (2) 수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수업참여는 수업시간의 태도, 토의시간의 태도, 현장학습이나 새로운 환경에서의 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한 태도, 학교에 출석하는 태도 등을 내용으로 하며 문항 수는 5개이다. 〈표 5〉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적용 전인 사전검사에서 적응력이 평균 77.8%를 나타내던 것이 사후검사에서 80%로 수업참여에 대한 대상 아동들의 적응력의 향상도가 2.2%의 증가를 나타냈다. I는 8%가 향상되어 가장 변화도가 컸으며 아동 C, E, F, H는 4%의 향상율을 보였다. 그러나 아동 A, D, G는 향상되지 않았으며 아동 B는 4%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수업참여의 개별 결과

구분 아동	평점(25)		백분율(%)		증감 정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A	16	16	64	64	0
B	18	17	72	68	-4
C	23	24	92	96	4
D	25	25	100	100	0
E	24	25	96	100	4

구분 아동	평점(25)		백분율(%)		증감 정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F	16	17	64	68	4
G	25	25	100	100	0
H	14	15	56	60	4
I	14	16	56	64	8
평균	19.44	20.00	77.78	80.00	2.22

(3)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의 내용은 글씨를 바르게 쓰는 정도,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의 태도, 수업 활동 때의 행동의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항 수는 5개 이다. <표 6>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적용 전인 사전검사에서 적응력이 평균 68%를 나타내던 것이 연구 후 80.4%로 자기통제에 대한 대상 아동들의 적응력이 12.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F는 사전, 사후검사에서 증가율이 24%로 나타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아동 D는 증가율이 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아동 F는 프로그램 전에 사전검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프로그램 후 72%의 적응력을 보이며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그 외에도 아동 G는 20%, 아동 A와 I는 16%, 아동 B와 H는 12%, C는 8%, E는 4%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기통제의 개별 결과

구분 아동	평점(25)		백분율(%)		증감 정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A	17	21	68	84	16
B	13	16	52	64	12
C	21	23	84	92	8
D	22	22	88	88	0
E	22	23	88	92	4
F	12	18	48	72	24
G	18	23	72	92	20
H	15	18	60	72	12

구분 아동	평점(25)		백분율(%)		증감 정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I	13	17	52	68	16
평균	17,00	20,11	68,00	80,44	12,44

### 3) KSD 검사결과 및 미술 활동 내용 분석

- (1) A아동- 사전 KSD에서 지나치게 강한 필압과 날카로운 눈, 코, 입, 총, 칼 등이 등장한 것은 정서조절이나 자기 통제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이지 못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초기와 비교하여 사이좋게 추구를 하고 있는 운동장의 풍경을 그린 후기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인다. 방과 후 교실에서 지내는 같은 학년 친구들과 형이 등장하고 꽤 구체적으로 운동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적응과정으로 발전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 (2) B아동-처음에 교사가 그림을 그리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한말은 “자로 그리고 싶어요.”였다. 반드시 바르게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으나 거부 의사를 밝혀 자를 주었다. 그러자 그림의 직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모두 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인물을 표현할 때는 직선부분에 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렸다. 자를 대고 그린 사전 KSD에서는 학교건물에서 경직성이 나타났고, 친구들과의 분리된 혼자만의 모습이 나타났다. 중간에 지우개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실수에 대한 불안이나 자신감 결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비해 후기에서는 방과 후 친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같이 총으로 전쟁놀이하고 있어요’라고 언어적인 표현을 함에 있어 또래관계를 인식하고 함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자를 사용하여 중간에 선을 그렸지만 단순히 공간의 구분일 뿐 관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방

과 후 담당 교사를 윗부분에 그렸는데 “시끄럽다”라고 말은 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B아동의 사전 KSD]



[B아동의 사후 K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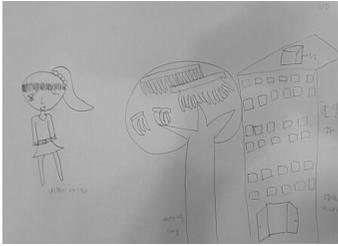
〈그림 2〉 B아동의 사전/사후 KSD

(3) C아동- 변화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싸우는 장면을 주로 그렸고,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총을 겨누고 있거나 날카로운 칼이 등장한다. 사용하는 말에 있어서도 ‘얏, 죽어라’ 라는 언어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후기 그림에서는 운동장에 나와서 친구들과 노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작업이 이 아동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활동 중에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여 말을 하거나 활동 중에 옆 아동과 이야기를 많이 하여 자신의 활동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작업 계획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4) D아동- 초기나 후기 모두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분리하여 자신을 그리고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종이의 윗부분을 차지했던 초기와는 달리 자신과 짝공을 윗부분에 사이 좋게 붙여서 그렸고 선생님이 아랫부분에 있되 정면을 보고 서계신 모습이였다. 그것으로 보아 소극적이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하여 또래간의 관계가 활발하지 못했던 아동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

램을 통해 다소 적극적인 관계성을 드러내는 양상으로 발전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 (5) E아동- 초기에 교사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리라고 했을 때는 머뭇거리고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몰라 했으며, 교실에서 생활하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후기에 그린 KSD에서는 수확시간에 자신이 앞에 나가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자신 있게 표현하였고, 의자에 앉은 친구들의 뒷모습도 다양하게 그려내었다. 이를 통해 이 아동은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이 충분히 발전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 학교생활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부족한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 (6) F아동- 처음에 종이를 받았을 때는 바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다른 아동들이 하는 것을 관찰하다가 혼잣말로 ‘나는 그림 별로 안좋아 하는데’ 하며 핑계를 대려는 태도를 보였다. 완벽하게 과제수행을 해야 자신도 만족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망설였으나 후기에는 잠깐 고민하더니 교사의 제안이나 도움 없이도 교실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 (7) G아동- 목소리가 매우 작아서 교사가 되묻거나 아동의 옆에 가서 들어야 할 정도였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보였다. KSD를 그리면서도 자신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했다. 사전에 그린 그림은 학교건물과 자신만을 그린 모습이다. 또래들과의 관계나 작업에 대한 집중의 정도가 다소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머리와 나무의 열매 등에 사용된 반복적인 세로선들과 학교건물의 작은 창문들이 이 아동의 불안요소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기의 그림에서는 교실 안에 친구들이 여러 명 보이고 다 그린 후에 “우리는 서로 짝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앞뒤로 함께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G아동의 사전 KSD]



[G아동의 사후 KSD]

〈그림 3〉 G아동의 사전/사후 KSD

- (8) H아동- 전, 후기 모두 운동장의 모습을 그렸고 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선의 필압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있었다. 즉 전기의 KSD에서 나타난 선들은 매우 강하고 경직되어 있었고 지우개를 여러 번 사용한 흔적을 보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선이 다소 부드러워 졌으며 혼자서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전기만큼 반복적으로 지우개를 사용하지는 않고 완성하였다.
- (9) I아동-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사가 다시 여러 번 보충안내를 하였고, 그리면서도 고개를 가우뚱 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실의 모습이었는데 그림의 사이즈가 매우 작고 자신과 친구, 선생님의 모습보다는 주변의 창문, 청소도구, 개인장 등을 세세하게 그렸다. 후기에도 주변의 모습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림의 의도와 내용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부적응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교생활 적응검사의 항목 중에서

교우관계 측면은 각 아동마다 점수의 증감폭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즉 학급에서 교우관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아동은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을 수용하며 이해하는 태도가 향상 되었다. 활동하는 중에도 가끔 공격성을 드러내는 아동이 있었으나 회기가 거듭될수록 또래와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통제하려는 행동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미술치료의 진행과정 중 자신의 의사를 무조건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동들과 서로 나누어야 하는 토론 활동이 집단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 느낌을 말하면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참여의 부분에서 보면 집단미술치료라는 자연스러운 환경에 참여함으로써 한명의 교사와의 개별적인 관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학습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경험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 자신이 표현방법을 구상하고 작업을 계획하면서 자율성과 적극성을 획득하고 완성하기 위해 집중함으로써 과제수행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료의 이름과 특성,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하면서 적합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통해 인지적인 발전도 꾀할 수 있다.

자기통제 측면에서는 유독 공격성을 드러내며 다른 항목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아동이 현저하게 높은 증가현상을 나타낸 것이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집단미술치료의 프로그램이 나와 더불어 집단원들이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고 서로의 작업과정을 지지해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요구를 내세우기 전에 기다리고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기 전에 약화시킬 줄 아는 태도를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결

과는 박승란,<sup>34)</sup> 전경숙,<sup>35)</sup> 진현서<sup>36)</sup>가 자신의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을 지지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작품을 완성하고 난 후 또래의 감상평을 듣거나 교사의 칭찬, 격려를 접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친밀해 지며, 자신도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이미애<sup>37)</sup>와 백경미<sup>38)</sup>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교육현장과 미술치료 현장에서 실시해온 결과를 보면<sup>39)</sup>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 재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아동, 집단관계에 숨겨진 장애물을 유연하게 넘어가지 못하는 아동 등의 문제는 미술치료를 행하는 치료사에게는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운 현상임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을 안고 있는 모든 아동을 문제아동이라고 분류하여 의료적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처럼 경미하지만 학교생활에서 일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에도 문제성을 드러낼 때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대상도 예방적 차원에서 매우 유용하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경우 바람직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병원의 처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활동적 접근이 가능한 미술치료방법을 실시해봄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초등학교

---

34) 박승란,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3.  
 35) 전경숙,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11.  
 36) 진현서, “위축아동에 대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자기 표현력과 또래관계 향상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25.  
 37) 이미애, “미술치료가 불안정 애착아동의 애정안정성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4), 45.  
 38) 백경미, “교류분석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3), 53.  
 39) Diane Fausek, *A Practical Guide to Art Therapy Groups*, 이미애 · 김갑숙 역. 『집단미술치료의 실제적 안내』(경기: 양서원, 2005), 220.

시기의 행동경향은 이후인 청소년시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서 학교생활적응 항목의 모든 영역이 균형 있게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학년의 아동들에게도 확대해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현행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미처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정서적인 부분까지 담당하게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장 교사들이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아동들을 이해하고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여 틈새 교육방법의 하나로써 미술치료기법을 활용한 활동을 도입해 보기를 바란다.

본 연구가 부적응 행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아동들만의 문제가 될 수 없고 가족 구성원 중 양육방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모와의 인터뷰나 동반 미술치료가 필요함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번 연구에서도 연구자가 시도를 해보았으나 부모의 참여가 미흡한 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 【 참고문헌 】

- 공진홍. “과잉행동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행동수정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김동연 · 공마리아 · 최외선. 『HTP와 KHTP 심리진단법』. 대구: 동아문화사, 2006.
- 김동연 · 진순연. “학대받은 아동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연구』 제7권 2호(2000): 1-28.
- 김보경. “학급단위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11.
- 김선관. “가출소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대학원, 2000.
- 김수진.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01.
- 김연민.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전도식기 아동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김화정.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행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문선모. 『교육심리학의 이해』. 서울: 양서원, 2010.
- 박선화.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박승란.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 박인숙. “집단미술치료가 고립아동의 우울성향,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08.
- 백경미. “교류분석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13.
- 송인숙.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위축아동의 위축행동과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1999.
- 안연옥. “집단미술치료가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양은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2003.
- 이미애.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대학원, 2001.
- 이미애. “미술치료가 불안정 애착아동의 애정안정성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대학원, 2004.
- 장은경. “서울 지역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의 미술치료 현황과 과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8호(2009): 350-359.
- 장현정. “인천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미술치료에 대한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 전경숙.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 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전미향.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존중감과 사회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1998.
- 정금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보건스포 츠대학원, 2008.
- 정보경. “집단미술치료가 ADHD경향이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2008.
- 정선화 외. 『가족미술치료와 물고기 가족화의 해석』. 경기: 한국학술정보, 2011.
-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7.
- 정원식 공저.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1984.
- 정익현.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조은희. “사회복지관의 미술치료 실태조사 연구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안의학대학원, 2005.
- 주현남. “집단미술활동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초등학교아동의 대인관계 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진현서. “위축아동에 대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자기 표현력과 또래관계 향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최선남 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서울 : 카운피어 원격교육연수원, 2002.

- 채의병. “집단미술치료가 부적응행동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2007.
- 최연애.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2006.
- 최효숙. “매체에 따른 만다라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12.
- 홍경자.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도형 개발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황지희.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성과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대학원, 2003.
- Angrili, A. & L. Helfat, *Child Psychology*. New York: Harper & Row, 1981.
- Fabio S. & T, John, *Experimental Design and Statistics for Psychology: A First Course*. 문선모 역. 『교육심리통계법』. 서울: 교육과학사, 1992.
- Fausek, Diane, *A Practical Guide to Art Therapy Groups*. 이미애 · 김갑숙 역. 『집단미술치료의 실 제적 안내』. 경기: 양서원, 2005.
- Jacson, P. W. *Life in Classroom*.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e Inc., 1968.
- Knoff, H. & H. D. Prout, *Kinetic Drawing System for Family and School: A Handbook*.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8.
- Rinwert, J. *Children in Conflict*. St. Louis, MO.: Mosby Co., 1976.
- Rubin, J. A. *Art Therapy: An Introduction*. Philadelphia: Brunner/Mazel, 1999.

【 Abstract 】

##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School Adjustment of Maladaptive Behavior Children

**Eun Hye Kim & Seon Hwa Jung**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 Kyung-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group art therapy on the school adjustability of maladjusted childre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nine selected children who were in their first, second and third grades in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an urban community, Gyeonggi Province. The selected children participated in after-school programs. The level of their maladjusted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was tested, and the KSD test was conducted to make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ir school adjustment with teachers and peers.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maladjusted behavior of the maladjusted children to whom a group art therapy was provided. In the pretest, they scored low in peer relationship, class participation and self-control that were the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but they showed a significant rise of scores in school adjustment after they engaged in the group art therapy activities. In the KSD test, there were negative descriptions in their pretest drawings, which showed that they were alone without mingling with their friends, fought with them or pointed a gun or knife at them. In the posttest drawings, however, they worked out with their peers or described themselves and friends in various ways. Some explained their drawings in detail, and the lines that they drew looked softer. Thus, the children who had showed maladjusted behavior underwent positive changes in peer relationship, way of looking at school life and emotional psychology.

**Key words:** group art therapy, maladjusted behavior, self-control, class participation, peer relationship.